



이명박 대통령 대교협 방문, 교육정책 간담회 개최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7월 30일(목)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를 방문하여 대학생, 대학총장, 학부모 등과 교육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대통령은 최근 교과부가 발표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와 대학생 자녀를 둔 서민층 가정의 최대 고민거리인 등록금 문제 등에 관하여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대통령이 직접 정부 정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학생들과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그것이 정책의 구체화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교협의 이배용 회장, 서거석, 이기수, 이희연 부회장을 비롯한 대학총장 및 고등교육 관계자 등 10여 명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윤종현 기획재정부 장관,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최구식 제6정조위원장, 정진곤 교육과학분회수석,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 박형준 홍보기획관 등이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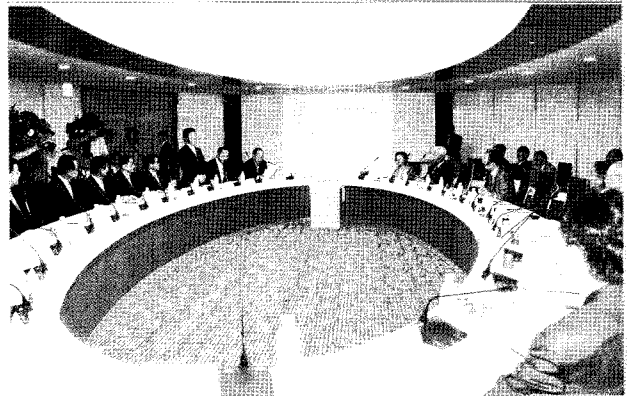
2009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개최

대교협은 2009년 7월 1일(수)부터 3일(금)까지 2박3일 동안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2009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를 '대학 경쟁력 기반 조성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역대 최대 규모인 164개 4년제 대학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교협과 미국교육협의회(ACE)의 양해각서(MOU) 체결, 한국과 미국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김신복 서울대 부총장, Molly Corbett Broad ACE 회장의 기조강연, 대교협 2009년 대학입학전형업무 및 대학평가 추진 계획 보고,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대학 총장들의 고등교육정책 간담회, 특별위원회 분과회의, 제주도 문화탐방 등으로 진행되었다.



대교협-미국교육협의회(ACE) MOU 체결

대교협은 2009년 7월 1일(수) 미국교육협회(ACE)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는 한국과 미국의 고등교육 발전과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대교협(KCUE) 이배용 회장과 미국교육협의회(ACE) Molly Corbett Broad 회장 간의 협약서 서명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대교협과 ACE는 상호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실무작업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그 주요 내용에는 '한미 대학총장 원탁회의 격년 개최', '범태평양 고등교육 포럼' 등의 사업이 있다.



고교-대학 연계 워크숍 개최

대교협은 2009년 7월 13일(월) KGIT 13층 국제회의장에서 이배용 회장을 비롯한 대교협 임원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고교-대학 연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날 워크숍에서는 대학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한 정기협의회 구성 및 고교교육과 대학교육간 연계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교육감협의회와 대교협은 전국 16개 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장 및 각 대학 입학처장이 참여하는 실무자급 협의체를 구성, 입학사정관제의 기초 자료인 고교생활기록부 변별력 확보 방법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대교협-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MOU 체결

2009년 8월 10일(월) 대교협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곽덕훈)은 대교협 회의실에서 양 기관의 기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교육 및 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상호협력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하여 양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대학교육 및 학술연구 활성화 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대학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양 기관 공동 목표 달성과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정보 교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009년도 입학사정관 제4차 직무연수 실시

대교협은 2009년 7월 22일(수)~24일(금)까지 2박3일간 강원도 양양 오색그린야드 호텔에서 입학사정관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9년도 제4차 입학사정관 직무연수를 개최하였다. 이번 직무연수 프로그램은 참여한 입학사정관들이 팀별 전형 및 평가요소 개발, 전형 절차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모의평가를 실시, 팀별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